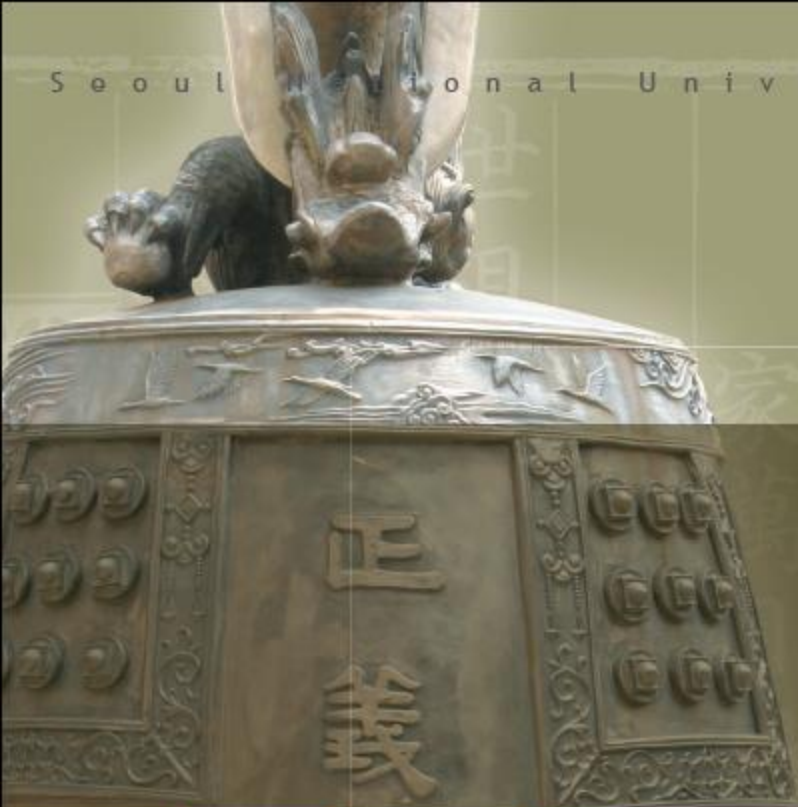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Magazin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2005

vol.5

大典序

自古帝王之有天下國家也
經綸草昧而未有典故守文之君遵
守舊章而不敢改作雖曰漢高筭
無遺策家萬目下於漢唐
興猶與猶與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大典序



Vol. 5

SNU LAW MAGAZINE

正義

C o n t e n t s



SNU Law Magazine 제5호

발행인 : 성낙인
 편집 : 박정준, 이근관, 이원우, 정성연
 발행일 : 2005년 12월
 발행처 : 151-74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법과대학>
<http://snulawil.nd.or.kr/법학발전재단>
<http://jls.snu.ac.kr/~lawletter/법과대학뉴스레터>

- 02 발간사**
 ■ 정의의 종 제5호를 내면서 - 학장 인사말
- 03 후원소식**
 ■ 후원인 명단
- 05 특집 1 - 서울대법대 BK21사업단의 성과와 전망**
 특집 2 - 신임부학장 소개
 ■ 신임부학장 이근관 교수
 특집 3 -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 Cornelius G vander Merwe 교수
- 10 학술활동**
 ■ 학술활동과 국제화
 ○ 국제학술활동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국제컨퍼런스 "지적재산권 소송의 실무"
 2005 아시아헌법 학자대회
 2005 국제학술대회 "고대 로마와 중세의 법과 평화"
 韓中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법과대학장협의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제1회 한·일·중·심포지엄 "자식 경제의 도래와 지적 재산법의 발전"
 한국-베트남 국제법 심포지엄
 ○ 국제교류활동
 ○ BK Foreign Authority Forum
 ■ 국내학술활동
 ○ UN 아동권리 협약 발효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 최종길 교수 32주기 추모 강연회
 ○ 한국법과 세계화 국제심포지엄
 ○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 II
 ○ 광복 60주년 헌법학술대회
 ○ (한국 전더법학연구회) 창립
 ■ 교수집담회
 ■ 서울대 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 최고지 도자과정(ALP) 소개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 [통합도산법]
- 25 학생활동**
 ○ ALSA, 제섭 소식
 ○ 학술제
 ○ 체육대회
 ○ 학생회
 ○ 공부방법설명회
- 28 동문인터뷰**
 ○ 김유성 교수
 ○ 김진표 교육부총리
 ○ 천정배 법무부장관
- 36 교수동정**
- 40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
 이러한 작은 노력의 성과물들은 지금껏 서울법대를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의 덕분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계로 나아가는 법과 법학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의 종 5호를 내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사랑하시는 동문, 후원자 여러분께

교정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니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숙한 후원문화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을 설립하고,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법대 내외의 소식을 전하고자 '정의의 종'을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간행되는 '정의의 종'이 벌써 5호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의 종' 역시 법대 내외의 소식과 BK 학술활동을 포함한 국제·국내 학술활동 및 교수신간저작과 동문 인터뷰 및 교수 최근 동정 등을 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7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대에서는 풍성한 국제학술회의 및 각종 국제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의 성과물들은 지금껏 서울법대를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의 덕분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계로 나아가는 법과 법학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문 및 후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성 낙 인 (成 樂 寅)

후/원/인/명/단

SNU Magazine

2005년 후원인 명단

(단위 : 원)

년월일	성명	납입금액	비고
05.1.7.	황무식 (서울대 수의대 교수)	691,200	
05.1.17.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	3,900,000	
05.1.17.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500,000	
05.3.2.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1기 수료생	500,000,000	
05.3.11.	조재건 (광주지방법원 판사)	500,000	
05.3.9.	김&장 법률사무소	3,000,000	
05.3.11.	남유선 (재규어 랜드로바 이사)	2,000,000	
05.3.15.	김대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성)	5,000,000	
05.3.16.	법무법인 세종	3,000,000	
05.3.22.	법무법인 광장	3,000,000	
05.3.28.	법무법인 세종	300,000,000	
05.4.28.	법대 제28회 졸업생	500,000,000	
05.5.2.	구분세	30,000	
05.5.11.	황무식 (서울대 수의대 교수)	700,000	
05.5.30.	구분세	30,000	
05.6.10.	법대전문분야법학연 구과제 제19기 수료생	100,000,000	
05.6.13.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500,000	
05.6.13.	김철수 (법대 명예교수)	2,000,000	
05.6.13.	정해창 (법대 통창회장)	1,000,000	
05.6.13.	박경호 (대법 법무시험회장)	1,000,000	
05.6.14.	김&장 법률사무소	630,000,000	
05.6.15.	KT이이텔	1,000,000	
05.6.20.	한민 (변호사)	100,000,000	
05.6.30.	구분세	30,000	
05.7.1.	원무현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1,200,000	
05.7.1.	이홍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1,000,000	
소 계		243,081,200	
년월일	성명	납입금액	비고
05.7.4.	이병철 ((주) 다음부동산인식사업)	10,000,000	
05.7.18.	정위수 (법대 02학번 정삼민 3)	2,000,000	
05.8.30.	박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000,000	
05.8.1.	구분세	30,000	
05.8.30.	구분세	30,000	
05.8.14.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2기 수료생	70,000,000	
05.8.15.	오연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000,000	
05.8.12.	이홍훈 (대법원장)	1,000,000	
05.8.30.	박영준 ((주)리서치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000,000	
05.9.30.	구분세	30,000	
05.10.4.	법대 제13회 졸업생	10,000,000	
05.10.10.	법대 제19회 졸업생	30,000,000	
05.10.14.	황무식 (서울대 수의대 교수)	700,000	
05.10.31.	구분세	30,000	
05.11.4.	법대 제39회 졸업생	70,000,000	
05.11.15.	최서원무교수 유족	5,000,000	
소 계		203,820,000	
합 계		446,901,200	



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특집

1. 서울대법대 BK21사업단의 성과와 전망
2. 신임 부학장 소개
3.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正義

서울대 법대 BK21 사업단의 성과와 전망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 연구단(Brain Korea Law 21)은 2000년부터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2005년도 연차평가와 우수사업단 선정 심사에서 지난 7년 동안 우수한 업적을 낸 것으로 평가되어 12월 1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2000년 발족하였다. 2005년 현재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을 사업단장으로 하여 크게 '법과경제연구센터'(팀장: 권오승 교수), '공익·인권법연구센터'(정인섭 교수), '한국법연구

센터'(최종교 교수), '법제도비교연구센터'(양창수 교수)의 네 개의 교육·연구팀을 두고 있고 참여교수 31명, 대학원생 70명, 신진연구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학술활동의 정보화를 목적으로 법과대학과 사업단 등의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학술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했고, 'Journal of Korean Law'라는 영문 저널을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논문과 자문을 얻어 발간하여 국내외 법과대학, 연구소, 법학자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학술교류의 국제화를 위해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총 90회에 달하는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하여 해외의 학자들을 초청했고,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 및 국제교류분야에 전문 시선을 가진 내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정책 도출을 위해 Global Legal Studies Seminar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5년 발간된 『Law and Globalization』은 지금까지의 Foreign Authority Forum의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후속 연구자료로도 제 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이 추진한 학술교류는 서울대 법대·독일 Freiburg 법대의 공동심포지엄, 현재까지 5회 추진된 한일공동연구회, 한·중간 법학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한·중 법제사 공동심포지엄, "변혁시기의 중국법"학술대회, 중국 政法大學과의 공동심포지엄 등 그 대상이 전세계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의 네 개의 교육·연구팀이 그 주체가 되어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이처럼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는 총 54회에 이르고 있다.



>> 특집1 -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의 성과와 전망

한편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연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교수·대학원생 단기해외 조사 및 국제학술회의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대학원생이 장기해외연수를 받거나 해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과 인권』이라는 학술지 및 총서(현재까지 11권)를 발간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고, NGO활동가를 위한 공익·인권법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렇듯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한국의 법학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제 2기 사업단의 활약을 주목해본다.



신임부학장 이근관 교수



이근관 교수는 본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와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국제법 법학박사 과정을 마친 후 해군사관학교와 건국대학교, 일본 九州大學 법학연구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본교에는 2003년 9월에 부임하였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학생부학장의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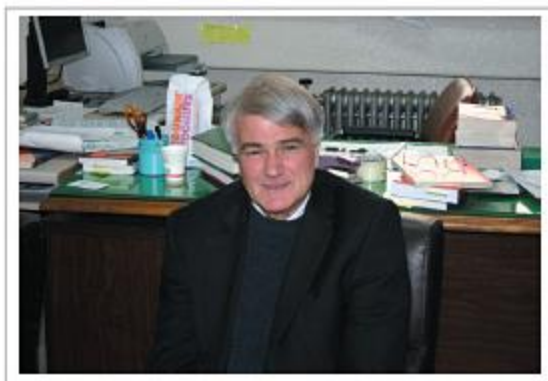
이근관 교수는 바람직한 학생부학장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나아가 졸업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장래 한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로서 사법부 이외에도 행정과 사적 영역에서도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임생의

진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배들을 초청하여 몇 차례 특강을 개최하고, 로스쿨과 관련하여서도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국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의 국제적인 소양을 증진시키거나 일반교양의 측면에서 법학 이외에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학자를 초빙할 계획도 진행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사법시험이나 진로 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것인데,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으면 부담없이 학생부학장실로 찾아올 것을 당부 하였다.



Cornelius G van der Merwe 교수



Cornelius G van der Merwe교수는 1972년에 남아프리카 대학(Univ. of South Africa)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1년에서 1973년까지 남아프리카 대학에서 사법(Private Law)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후 1999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텔렌보스 대학(Univ. of Stellenbosch)에서 로마 법과 사법 교수로 활동하며 1991년까지는 법학부 학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2000년이래로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버딘(Univ. of Aberdeen) 대학에서 민법(Civil Law)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5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당시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ship)으로 선정되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장학금(Alexander von Humboldt Stipend)을 수차례 수여 받기도 했다. 1976년에서 1977년까지 남아프리카 법학교

수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올해 본교에 방문한 Merwe교수는 현재 영미법강독과 영국사법연구 수업을 맡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이 혼합된 혼합법체계에 관해 조예가 깊은 Merwe 교수는 한국법의 특징과 함께 근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생명복제에 관련해서 신체와 재산권과의 관계 등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활동

1. 학술활동과 국제화
2. 국내학술활동

正義

학술활동과 국제화

❁ 국제학술활동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국제컨퍼런스 “지적재산권소송의 실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국제컨퍼런스 “지적재산권소송의 실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SNU Center for Law & Technology)는 6월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05년도 국제컨퍼런스 “지적재산권소송의 실무”(Patent Litigation Practice)를 개최했다. “제1부 균등권”, “제2부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부 ITC소송”, “제4부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허법원의 최성준 부장판사, 서울시립대학교의 김대원 교수, James C. Brooks, Eric L. Wesenberg 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소송 실무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본교에서는 성낙인 학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맡았고, 기술과법센터장인 정상조 교수가 1부와 2부의 사회를 맡아 컨퍼런스를 진행 하였다.

2005 아시아헌법학자대회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는 2005 아시아헌법학자대회(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AFCL))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법대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포럼으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에서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등 70여명의 법조인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3일 오전, 정운찬 서울대총장, 천정배 법무부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호암교수회관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첫날 토론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라는 주제 하에 Zhang Qian Fan 교수(중국 베이징대학), Koh Philip 변호사(말레이시아), Thio, Li-ann 교수(국립싱가포르대학), 정종섭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튿날에도 ‘아시아에서의 입헌주의의 최근동향’이라는 새로 주제에 대해 French, Robert Shenton 판사(호주 연방법원), Kananura 교수(일본 게이오대학), 임지봉 교수(전국대)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07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2년 주기로 아시아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5 국제학술대회 "고대 로마와 중세의 법과 평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0월 7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고대 로마와 중세의 법과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역사 속에서 평화의 정착과 유지를 위하여 기능해온 법의 모습을 서양고대와 중세에 집중하여 살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 되었으며, 1부에서는 '평화질서로의 법'을 주제로 하여 '로마의 비밀 : 재판화된 자유질서로의 법' (Prof. Okko Behrends, University of Gottingen, Germany), '중세 전쟁론상의 정의, 법과 불가피성' (Prof. Laurent Mayali, UC Berkeley, U.S.A.)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사법 상의 법제도와 평화'를 주제로 하여 다시 채권법, 물권법, 인법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 되었다. 채권법 영역에서는 '로마계약법상의 정의관' (Prof. Lhong Zhang (張礼洪),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China), '계약 충실과 후발적 급부곤란 : 법과 도덕 사이에서' (Prof. Martin Schemmaier, University of Bonn, Germany) 발표가 있었고, 물권법 영역에서는 '하자점유의 항변' (Prof. Ulrich Manthe, University of Passau, Germany), '장기점유와 부동산침탈 : 중세 커먼로상의 취득시효' (Prof. Keachang Kim (김기창), Korea University, Korea) 발표가 있었으며, 인법 영역에서는 '미성년자의 원상회복과 보좌인의 책임' (Prof. Shigeo Nishimura (西村重雄),

Kyushu University, Japan)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이 열렸다.

韓中 국제학술대회



11월 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과 교수회의실에서 BK21 법학사업단 한국법연구센터 中國政法大學 法律史學研究中心의 주최로 "역사적 시야에서 본 한중 법률 교류" 학술대회가 열렸다. 기조발제는 張晉藩 중국정법대학교수의 "중국법계의 復興과 和諧사회의 건설"과 최종교 교수의 "동아시아 법률의 교류의 역사와 과제"였다. 학술대회는 크게 2부로 나뉘어, 제 1부에서는 정궁식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林 中(중국정법대학)교수의 "중국고대의 정치문화의 基本特徵"과 임상혁(숭실대 법대)교수의 "16세기 決訟입안과 소송", 屈超立(중국정법대학)교수의 "송대법제개론" 발표가 있었고, 제 2부에서는 최병조 교수를좌장으로 하여, 李 青(중국정법대학)교수의 "대명률과 중국과 조선의 법문화 교류", 정궁식 교수의 "한중 법률서적의 교류", 焦 利(중국정법대학)교수의 "중국에서 행정법률문화의 전승과 발전"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마치고 최종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연편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아시아법과대학장협의회(ALSI)주관 국제학술대회

2005년 11월 10일에서 11일에 걸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아시아의 법학 교육에 대한 반성(Reflections on Legal Education in Asia)”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는 아시아법과대학장협의회(ALSI)가 주관한 것으로서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공동주최했으며, 5개의 세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법학교육과, 이와 관련한 문화적 특성 및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에서는 성낙인 법과대학 학장과 이근관 학생부학장이 참가하였으며, 성낙인학장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 법학 교육 개혁(Reform of Korean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s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1회 한·일·중 심포지엄 “지식 경제의 도래와 지적 재산법의 발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11월 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동경대학교 先端科學技術研究센터와 공동으로 제1회 한·일·중 심포지엄 “지식 경제의 도래와 지적 재산법의 발전”(Moving into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을 개

최하였다. 한국 특허청, 중국 사회과학원과 일본지적재산협회(JIPA)가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졌다. 본교에서는 정상조 교수와 구대환 교수가 참석하여 세션2 세션3의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한계”와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전략-실용신안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한국-베트남 국제 법률 심포지엄

지난 11월 22일에서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세라톤 호텔에서는 한국의 아시아법 연구소와 베트남의 국가와 법 연구소의 주최로 한국-베트남 국제 법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베트남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 - 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의 구상을 중심으로-’로서, 베트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제표준에 걸맞는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본교에서는 권오승, 정종섭, 송석윤, 구대환 교수가 참가하였는데, 권오승 교수가 한국 아시아법연구소 소장으로서 개회사를 맡았고, Rainer Frank 교수와 정종섭 교수가 각각 독일과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송석윤 교수는 법학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구대환 교수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토론에서 사회를 담당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외에도 성낙송 부장판사, 최상철 부장검사, 심동섭 부장검사와 양영태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 등 많은 실무가들이 참가하였으며, 베트남 측에서도 대법원 부원장, 대검찰청 부총장 등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총 인원이 300명에 가까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제 교류활동

나고야 대학과 학술 교류

본교와 외국대학 사이의 국제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故 서원우 명예 교수는 2005년 7월 15일 일요일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과 아울러 성낙인 학장, 박정훈 교무부학장, 이근관 학생부학장, 호문혁 교수, 이원우 교수는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나고야 대학을 방문하여 나고야 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법학교육국제세미나 참여하였다.

하버드, 조지타운, 뉴욕대학과 학술교류



10월 17일에 성낙인 학장을 비롯한 학장단과 송옥렬, 이우영, 정종섭, 이근관, 장승화 교수 5명 및 하버드대 연청연구소 초청으로 7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국 교수 등 본교 법과대학 교수들이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Elena Kagan 학장 및 William P. Alford 부학장 등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법학교육 개혁'을 주제로 임상법학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지난 7월 Alford교수의 본교 방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는 최



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론과 관련하여, 로스쿨의 본산인 하버드대에서 한국의 법학교육 개혁 방향과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모의재판, 법학교육 실습과정, 공식소송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하버드 법대와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교 학장단은 조지타운 대학을 방문하여 Alexander Aleinikoff 학장을 예방하고 Barry E. Carter 교수 등과 더불어 임상법학교육 및 법학교육 전반에 대해 토론했으며,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Richard L. Revesz 학장을 만나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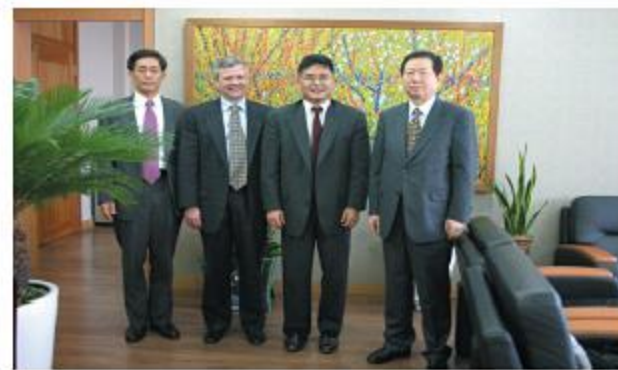


외국인교수 방문

올해에도 어김없이 법대에는 많은 외국인 교수들이 방문하였다. 지난 9월 5일 대만 사법원의 대법관 서기처의 蔡炯墩(Jeong-Deun Tsai) 처장 등 예방단 4명이 법과



대학을 방문하였다. 9월 28일 Seattle Univ. College of Law의 Ronald C. Syle 교수가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성낙인 학장과 정상조 교수를 예방하였다. 또한 10월 17일에는 前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 총장인 한스 마이어 교수가 법과대학을 방문하였으며,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5년 11월 1일에는 중국정법대학 교수인 張晉藩, 林中, 屈超立, 李青, 焦利 교수가 본교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미국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의 법과대학 학장인 Mary Anne Bobinski 교수와 Director of Development인 Ana-Maria Hobrough 교수 등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BK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사업단에서는 수시로 외국 의 저명 학자와 교수들을 초빙하여 Foreign Authority Forum을 열고 있으며, 이는 학문에 있어 국제적 교류의 장을 넓힘과 동시에 세계적 안목을 기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래는 올 하반기에 열린 Foreign Authority Forum의 목록이다.



Foreign Authority Forum

회차	주제	초청강사	일시
87	독일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Hans Meyer (전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총장)	2005년 10월 17일
88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he Global Legal Order - The Challenge Ahead	Prof. Murat A. F. M. Maruzsazani	2005년 10월 24일
89	"Terrorism, National Security 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Mariano-Florentino Cuellar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	2005년 11월 9일
90	"The Law and Culture of the Apology in Korean Dispute Settlement (with Japan and the U.S. in Mind)"	Ilhyung Lee 교수 (University of Missouri)	2005년 12월 5일

국내학술활동

UN 아동권리 협약 발효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난 9월 30일(금), 법대 백주년 기념관에서는 공익인권법연구센터(BK21 법학연구단)와 국제인권법학회 주최로, 아동권리협약 발효 15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0년 9월 2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본 협약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아동권리협약 발효 15주년에 즈음하여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본 한국 아동의 실상과 관련 법제도를 재검토해 보는 학술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대)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대), 원혜옥교수(인하대 법대),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 등이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신동운 교수(서울대 법대)의 사회로 지명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광호 청소년위원회 정책단장, 이배근 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 이승우 교수(성균관대 법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대) 등이 참여했다.

최종길 교수 32주기 추모 강연회



2005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최종길 교수의 32주기를 추모하는 강연회가 '인권변론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의 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석태

회장이 맡았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은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올해 그 32주기를 맞이하였다.

한국법과 세계화 국제심포지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과 세계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날의 행사는 BK21 법학연구단장인 성낙인 학장의 개회사와 송상현 교수의 “한국법과 세계화”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총 17명의 교수가 세계화 문제와 한국법의 고유문제를 논의하였다.

심포지엄은 크게 3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Globalization of Family law(Rainer Frank, Univ. of Freiburg),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Korean Law(최종길),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정상조), 데이터 보호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보호(구대환)로, 2부에서는 Mixed Legal System(Cornelius van der Merwe, Univ. of Aberdeen), 아시아공동시장의 형성과 법적 과제 발표(권오승), 법률의 세계화 배경 아래서 본 중국사법제도 개혁 - 법원제도 개혁을 중심으로(최림림 교수(중국 정법대)), 한국헌법재판제도의 발전 방향(정종섭),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한중 수교(1992)에 따른 한-대만간 조약의 효력문제를 중심으로(이근관), 법치주의와 세계화(김도균)로, 3부에서는 세계화와 법(양창수) 계약의 해석: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윤진수), 단

체로서의 중중(김재형), 민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호문혁), “Korean Law”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창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몇 가지 쟁점(남효순)이 각각 발표되었다.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 II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주최로 2005년 제 7차년도 제 2회 학술회의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 II”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양창수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정훈 교수의 “법학방법론으로서 법의 역사적 고찰”-행정법과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원우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남효순 교수는 “프랑스민법전의 과거, 현재와 미래”-프랑스민법제정 200주년을 맞이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에는 정태운 교수(이화여대)와의 토론이 있었다고, 박정훈 교수의 “법학방법론으로서 법의 역사적 고찰”-행정법과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발표에 이원우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광복 60주년 형법학술대회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4시간여에 걸쳐 광복 60주년 형법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 출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적



인 교수의 개회사와 본교 성낙인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5개 주제에 걸쳐 한국 형법학 60년 전반에 걸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박정근 교수(중앙대 법대)의 사회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 '한국 형법학 60년과 유기전 형법학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상 교수(이화여대 법대)의 발표가 있었으며,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대)의 토론이 뒤따랐다. 두 번째 주제로는 '절도죄의 해석론에 비추어본 구성요건이론의 변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가 발표하고 손동원 교수(전국대 법대)가 토론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형법학에 있어서 위법성이론의 변천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형국 교수(한림대 법학부 석좌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법대)가 토론을 맡았다. 제2부에서는 정성근 교수(성균관대 법대)가 사회를 보았으며, 제4주제로 '공범 일반론과 공동정범'에 대하여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대)가 발표하고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법대)가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제5주제는 '한국 형법상 과실범 이론의 전개'로서 본교 이용식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최우찬 교수(서강대 법대)의 토론이 뒤따랐다.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창립

지난 12월 3일(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한국젠더법학연구회>의 창립식이 있었다. 한국젠더법학연구회라는 명칭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남녀관계의 재구성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를 바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창립 모임에는 여성주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과 여성 판사, 변호사 등 실무자들 40여명이 모였다. 서울대 법대 학장인 성낙인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전수안 수석부장판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서울대 법대 양현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전수안 판사의 축사에 이어 젠더법학연구회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에 대한 전남대 법학과 차선자 교수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대법 6회 격월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연구회는 부부재산제를 주제로 2006년 1월 14일(토)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수 집담회

법과대학에서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집담회에서는 주로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발표를 맡고 있으며, 외부 인사가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명예교수를 비롯한 법과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며, 교수들 간의 집담회인 만큼 심도 높으면서도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 각 법학 분야 간의 이해를 돕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열렸던 교수집담회의 목록이다.

회 차	주 제	발 표 자	일 시
12	미국수감인구의 팽창 - 언제 얼마나, 왜 -	현인섭 교수	9월 27일
13	남북간 상사 분쟁의 해결 - 중재규정(안) -	장승화 교수	10월 13일
14	독일 대학의 자치와 경쟁력	Prof. Hans Meyer (독일 훔볼트대 전 총장)	10월 18일
15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	박정훈 교수	11월 3일
16*	Terrorism, National Security 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Prof. Mariano-Florentino Cuelar(Stanford 대)	11월 9일
17	목적론적 해석과 구성적 해석	김도균 교수	11월 16일
18	포상과 처벌의 진화심리학	박순영 교수(인류학과)	11월 23일

* 89회 Foreign Authority Forum과 같이 열림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소개

『Law and Globalization』

서울대 법대 BK 21(발행인:성낙인, 편집인:김재형)



BK21 법학 연구단은 2005년 8월에 Foreign Authority Forum의 Lecture Book Series 제2권인 'Law and Globalization'을 발간하였다. BK21 법학연구단은 1999년 12월부터 Foreign Authority Forum을 마련하여 해외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강연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책은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개최되었던 Forum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사법, 공법, 인권법, 경제법, 법학교육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BK21 법학연구단의 공식 발간 저작이다. 제1권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저명 학자들의 글을 수록하였지만, 일본 등 아시아권 학자들의 논문이 많아졌고, 그 주제도 다양해졌다. 이는 한국법학의 연구 및 관심분야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연구주제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고 / 『한강에서 라인강까지:한독관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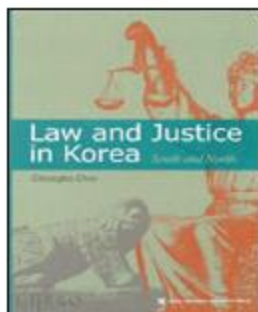
유로서적



1979년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 최종고 교수는, 작년 Freiburg 심포지움에서도 양교친목과 학술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엔 출간된 “한강에서 라인강까지:한독관계사”는 특히 ‘한국의 해’를 맞아 한독관계 120년사를 서술한것으로서, 한국과 독일의 초기접촉부터 해군정책과 한독교섭, 외교관계의 개통, 뮌헨도르프의 역할, 일제시대와 대한민국 시대의 한독관계, 양국의 문화교류 등을 서술하여, 한국과 독일의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고 / 『Law and Justice in Korea : South and North』

서울대 출판부



최종고 교수는 서울대 출판부에서 [Law and Justice in Korea : South and North]라는 영문저서를 출간하여 국내외의 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544쪽에 달하는 다소 방대한 이 책은 한국의 전통법 뿐 아니라 남북헌법을 함께 다루어 한국법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안내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10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법에 관한 유일한 책으로 출품되었고, 하와이대 법학 강의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있는 본서가 국내외 법학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한국법의 위상을 확인하는 필독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신동운 / 『형사소송법』

제3판/법문사



신동운 교수의 '형사소송법'이 8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3판에서는 형사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판례의 추이를 소개하고 동시에 최근까지의 학설동향을 반영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서에 소개된 법령개정의 내용은 2005년 7월 및 8월에 단행된 형법의 일부개정 및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포함하며, 판례는 기본적으로 2005년 3월 말까지 선고된 것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추후 발간 예정인 형사소송법 판례연구에 상세히 실릴 판례를 따로 표시하여 연구과정에서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안경환 외/ 『법, 정치, 현실』

나남출판



《법·정치와 현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서병훈, 김주성, 김종철, 김도균, 안경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근현대 법, 정치체제를 둘러싼 사상 지형과 그 역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함수관계와 법치 또는 ‘법의 지배’ 구현의 원리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결론적으로 법·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의 신장과 이를 보장할 공동체적 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와 지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경환, 한인섭 공저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그동안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소수의 사법관료=엘리트에 의해 독점된 법원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보내기는 쉽지 않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배심제야말로 모든 시민사법의 축이며 시민사법의 핵심은 배심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미의 제도로서 알려진 배심제는, 실제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밖의 나라도 배심제나 참심제 혹은 절충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한국에서의 배심제 도입 가능성과 시민의 사법참여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권오승 / 『소비자보호법』

제5판/박영사



이 책은 소비자의 권리부터 거래의 공정화,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피해의 구제까지 소비자 보호법 전반을 개관한 것이다. 특히 2004년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규제법 및 표시·광고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에는 독점규제법과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관련법 중 약관규제법과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하여는 거래의 실태도 많이 발전하였다. 이번 5판은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정인섭 외 / 『해외 법률문헌 조사방법(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우리나라의 법학연구에 있어 해외법률문헌을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과대학 수업 현장에서는 이의 조사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법학연구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최초의 전문 해설서이다. 정인섭 교수가 해외법률문헌 조사의 의의를 소개하는 데 이어 외국 각국과 국제연합, 한국의 전통법의 문헌 조사방법, 도서관 전자정보원의 활용에 대해 여러 교수들이 해설하고 있다.

정인섭 / 『한국판례국제법』

제2판/홍문사



이 책은, 영역, 국적 등 기본적인 논점에서 출발해 일제시대의 법적 유산, 남북한 관계,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등 각종 국제법적 논점과 관련된 판결들을 정리한 것이다. 광복 이후 2004년 말까지 알려진 국내법원의 전 판결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리원칙은 해당 판결문의 원문 중 관련부분을 발췌, 수록하였다. 또한 판결의 제목은 가급적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쟁점을 표시하려고 노력하였고,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일부 판결에 대하여는 일반적 통칭을 제목으로 하였다.

양현아 편/『“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공익과 인권11, 사람생각



이 책은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간행해 온 공익과 인권 시리즈의 연번제 책으로서, 2004년 11월 3일에 연렸던 같은 제목의 학술회의의 결실이다. '낙태죄'와 '재생산권'이라는 문제적 개념을 두 개나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입장들이 대립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입장을 옹호하기 보다는 재생산권 개념을 단초로 삼아 새로운 기준, 새로운 담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1부에서는 낙태 현실과 재생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3부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국내외의 주요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Law and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는 2005년 7월부터 격월간으로 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 학술지인 LAW & TECHNOLOGY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기술과법센터는 2008년 초에 설립된 이래 월레워크숍과 1년에 한 번 Berkeley 대학의 기술과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오면서 이러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을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하다가 최근의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격월간 학술지로 간행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술과 기술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모아 궁극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과 기업경영에 진정으로 필요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설한 서울법대 최고 지도자 과정(ALP: Advanced Law Program)이 이제 3기를 맞이했다. ALP는 지난해에 법과대학사상 최초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전문가과정으로, 법과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최고지도자 과정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40명의 수강생이 총 68강좌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올해 9월 6일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 제3기 최고지도자 과정 입학식이 있었다. 이번 최고지도자 과정에는 기업과 법조계의 각 분야에서 총 4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최고지도자 과정도 6개월 간 총 68강좌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강의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의장소는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17동 6층 서암홀이다.

주요 교과과정은 크게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과 법, 국가 경영과 현대 사법, 한국 경제와 법의 지배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법학 강의 외에도 1달에 1번의 부특강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황우석 박사가 강연을 했으며, 11월에는 건국대학교 새천

년기념관에서 최규원 의료원장이 강연할 계획이다. 그리고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회의 지도이념이 반영된 가치체계이며, 사회지도층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점에서 법과대학이 주관하는 과정은 큰 의의가 있다. 하루에 2강좌씩 주2회 진행되며, 매회 각 강좌에 본 대학 교수 한 분과 외부전문가 한 분을 초빙하여 이론과 현실을 결합시켜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손지연 대법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유육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가들을 초빙했다.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와 정책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 [통합도산법]



지난 9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 [통합도산법]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기의 [통합도산법]과정은 지난 2002년 2학기에 개설되었던 [기업의 갱생 도산과 법]과정의 후속과정이다. 이번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20기 '통합도산법'과정에서 남효순 교수와 김재형 교수님이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강의는 도산법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의 실제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간부사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터

득케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다.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대학기 행정소송과 행정법, 공정거래법, 인터넷과 법률,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금융거래법 등의 과정을 개설하며 한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20기는 9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교시로 나누어 한 시간반 정도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중간에 블록세미나도 가진다.

12월 5일과 12월 12일에 종합발표회를 끝으로, 12월 17일에는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 ALSA, 제섭소식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2005년도 Asian Law Students' Forum(이하 AF)이 8월 23일부터 6일간 한국 지부의 주최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8개국에서 모인 1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 규모를 자랑했다. 이중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8개 대학교에서 7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AF에서는 위헌 심사제도, 생명공학윤리, 인터넷저작권 등에 대한 학술토론과 각국의 민속공연을 통한 문화교류가 이뤄졌다. 한편 올해 초 제46회 세계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에서 세계 11위의 성적을 거둔 서울대학교 제섭(Jessup 지도교수 이상면) 팀은, 내년 경시대회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학술제



2005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제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법대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열렸다. 매일 한 회씩 각 학회의 모의재판으로 구성되는 학술제의 첫날은 민사법학회에서 사후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인지청구 문제를 다뤘다. 7일 국제법학회에서는 승인의 철회와 미승인정부의 법적지위를, 8일 경제법학회에서는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모의공정거래위원회

형식으로 다뤘다. 마지막 날에는 형사법학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중격투기 레스토랑에서의 선수사망 사건을 각색하여 사안으로 설정했으며, 한국형 배심제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법대 동아리방 320호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학술제가 법대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열렸다. 4일에는 법사회학회에서 '여성군입대, 그리고 징병제'라는 제목으로 모의헌법재판을 열었고, 6일에는 법대신문사가 부부강간을 주제로 모의토론회를 열었다.



▶ 체육대회



제4회 법대 학장배 축구대회가 9월 8일 개막하여 9월 15일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1999년 창단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축구부(약칭 법축(法蹴))의



주최로 열렸으며, 남자부 15팀과 여자부 2팀이 참가했다.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 및 대학원생팀 대 학부생팀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한편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법대 학장배 농구대회가 3on3농구, 여성자유투, 3점슛 세가지 종목으로 열렸다.



공부방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과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본인들의 공부방법, 컨디션 조절법, 시간관리 등이 이야기되었다.



» 학생회

제 26대 법대 학생회 선거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이번 선거는 53.0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R-Evolution" 선거본부의 박종하(04)가 57.9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 공부방법설명회

법대에서는 사법시험합격생을 주축으로 후배들에게 공부방법론 등을 지도하는 자치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가이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근대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이우스에서 주최한





동문인터뷰

1. 김유성 교수
2. 김진표 교육부총리
3. 천정배 법무부장관

正義



김유성 교수

국제노동법 연구원 원장



김유성 교수(노동법)가 올해로 정년을 맞아 37년간의 교수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정의의 종은 김유성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국제노동법 연구원 사무실에서 김유성 교수를 만나 정년을 맞이한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들어보았다.

기자: 30여 년간의 교수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기분이신지요.

김유성 교수(이하 김): 제가 67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로 시작해서, 69년 전임강사가 되었으니 39년이나 되었네요. 정년을 맞이 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은 잘 안나지만, 일단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도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의도한 바대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후회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잡념없이 학문의 외길을 갔다는 점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교수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김: 먼저, 대학이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일들이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만난 학생들과는 서로 어려운 시기에 만나서 인지 지금까지도 꾸준히 교류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들 4, 50대가 되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함께 아픈 시대를 잘 헤쳐나가 올바르게 성장했다는 점, 그 자체가 큰 보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가 것처럼 임중한 감시와 통제하에

학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도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의도한 바대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후회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잡념없이 학문의 외길을 갔다는 점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었던 시절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에게도 여러 활동이나 연구에까지도 제약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특히 내가 전공한 노동법 분야의 연구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특히 심했기 때문에 남다른 고통도 더 많았습니

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공화국 초창기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를 창립했고, 그 과정에서는 심지어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한 산장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회 정관도 작성하고, 연구회 활동방향을 논의했던 일들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발족시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가 현재 훌륭한 연구단체로 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 또한 상당히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노동법이 가진 학문적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물론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특히 노동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 증진시키고, 그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시험 공부 같은, 짜여진 틀 속에서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게 되면 사고방식자체가 굳어버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좀 더 열린 사고와 신축성 있는 태도로 법률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학 이외의 다른 인접학문들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철학, 경제, 정치학 등 다른 학문에 대한 소양을 많이 늘리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후 법학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다운 의미의 엘리트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엘리트의식이 아니라 유치한 우월감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의식이란 일종의 사명감을 자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단순한 우월감에 도취되어 생활해서는 결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 의식을 갖는다는 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는 직접적 사회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보람있는 사회기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앞서 이야기 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를 행정적 사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노동법연구원의 이사장 겸 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다양한 학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앞으로는 연구활동에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 요즘 학생들 아주 영리하고 순수해보여서 좋아요. 마지막 강의에서도 이런 당부를 했는데, 예컨대 사법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역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많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 의식을 갖는다는 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는 직접적 사회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보람있는 사회기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71년에 본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래 1973년에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001년과 2003년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2004년에는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에 취임하였다. 본지에서는 12월 2일 금요일에 교육부의 부총리실에서 김진표 부총리를 인터뷰하였다. 특별히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기자 안녕 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국세 청에서 처음 행정관료로서 경력을 시작하신 이래 2001년부터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인적자

교육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국가백년대계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의 기능 중 교육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인적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부 장관 등 요직을 연이어 연임하고 계십니다. 재정경제부에만 종사하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진표(이하 김) 두 자리 모두 국가의 대사를 수행

하는 자리라 어려움이 컸지만, 교육부총리로서의 직무가 특히 어렵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역전이 좋겠지만, 각자 처한 역전에 따라서 —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이든지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방향을 잡고 나서 갈등을 각오하고 설득해서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책의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문만 나도 땅값이 떨어지지만, 교육은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교육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국가백년대계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의 기능 중 교육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인적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교수, 선생님, 교육부,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능한 한 수요자들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 행정부에 주로 봉직 하셨는데, 아무래도 법과대학의 학생들은 사법시험과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선배들

의 이야기에 익숙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바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로스쿨이 도입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과대학 학생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등 다른 영역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김. 저는 법대에 들어갈 때부터 사법시험을 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상대에 가고 싶었는데, 하위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법대에 가야 했습니다. 또, 국제금융을 전공하고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고대 상대 이창열 교수 덕에서 3년 동안 가정교사 겸 조교로 있으면서, 서재에 구비되어 있던 장서를 읽으면서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는데, 주로 경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당시의 꿈은 한국의 아테나워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나워는 서독의 경제를 부흥시킨 수상인데, 그런 역할을 하면 참 보람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법과 형법 등 기초 법학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는 경제학을 공

율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무엇이든 규율하기만 하면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가들이 큰 흐름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재무부에서도 법대생이 상대생보다 많았고 장관도 많이 배출했는데, 제가 국장이 되면서부터는 후배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법조인 자격을 갖춘 다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적어도 조세, 국유재산 관리등의 업무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정리하느라고 법을 많이 만드는데, 법으로 규율할 사항이 아닌데도 법을 만든다는 생각도 이 듭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국가권력으로 규율할 부분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사회가 발전하다보니 구석구석에서 그런 가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법으로 규율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육 영역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정리하느라고 법을 많이 만드는데 법으로 규율할 사항이 아닌데도 법을 만든다는 생각도 이 듭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국가권력으로 규율할 부분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부하면서 글을 쓰고 서클활동을 하는 등 사법시험에 뜻을 두지 않고 결국 행정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던 재무는 대표적인 규제행정인데, 규제행정에서는 법적 사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성에서는 박사급의 변호사가 55%~60%입니다. 반면 경제학자는 30%가 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처를 통폐합하면서 약간 역할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법적 사고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생각해서 법적으로 규



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기초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규제보다는 자유롭게 창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틀만 정해주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형성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국회에서 입법 경쟁이 일어나 법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연 순기



능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입법부에서나 교육부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규제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사회 여건이 자주 바뀌는데 고정된 법으로 통제하면 규제가 되어 현장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법을 만들어서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경기도 중학 연합고사와 경북고 입학고사에서 수석을 하시는 등 학창시절부터 학업에 뛰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3 시절에 사회 문제를 고민하시다 재수생활을 하시는 등 시련을 겪으셨지만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여 곧 극복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연습하고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던 당시에는 법대생들이 오만하게도 학교 강의는 등한시하고 취직시험 비슷하게 사법시험을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매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연습 복습을 충실히 하던 학생이 재학 중에 수석 합격하고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 대학시절에도 봉사단체 활동, 금융기관에서의 실무, 독서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대학생은 대개 자유인을 꿈꿉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양한 경험, 독서, 토론, 사회활동 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꾸준히 공부하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함께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 시절에는 다양한 체험을 하느라 학교 공부를 등한시켰지만, 대학이야말로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학교공부에만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학시절에 쌓은 경험이 기초가 되어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후배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권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모교의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김. 법과대학이 교수도 적고 학생도 적어서, 법학도서관 짓는 것도 서울대 예산에서 빠져서울라오는 등 지원 우선 순위가 떨어져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대에는 전통이 있고 선배들이 사회에 많이 포진되어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법대생들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만에 이르면 편견을 낳게 되기 쉽습니다. 역시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법대졸업생은 사회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천 정 배

법무부 장관

천 정배 법무부 장관은 54년 생으로 72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이기도 하였다. 특히 1995년에는 정치에 입문하여 96년 15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유망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법조행정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법무부 장관실에서 천정배 장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법무부장관에 임명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천정배 장관(이하 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영문으로는 Ministry of Justice이니까 사실 정의를 추구하고 책임지는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법은 국민에게 친근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을 탄압하거나 규제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의 수호천사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를 만들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생활은 다른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천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자유롭게 비판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자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은 몇 명의 보좌진과 움직일 뿐이지만 법무부장관은 약 2만 5천명의 법무부 직원을 이끄는 위치에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법무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의 수호천사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으로서 참여

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학생시절에도 정치에 뜻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천.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학생이지만 선거유세에도 따라다니고 흉내도 내보고, 나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과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여 법조인으로서 생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군사독재가 엄혹한 시기였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많이 침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민변의 창립회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개선하고 신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독재적원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96년 선거를 통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삶과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계가 만일 계속 변호사만 했더라면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경험했던 일들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서민들과 교류하고 호흡하여, 이를 통해



배운 바가 많습니다. 공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당초 생각했던 사회 전반의 인권향상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기여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은 국민참여재판(배심 재판)이 법관재판보다 더 공정하다고 여기며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이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면에서나 민주주의나 문화 및 사회 각 분야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러한 설문 결과는 큰 틀에서의 법조 실무,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 경찰 등의 법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는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양형기준제

법조인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개선하고 신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독재적원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96년 선거를 통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도를 만들어 양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구속 수사의 확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권이 옹호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절차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의 확대와 법률구조공단의 운영, 그밖에도 개인회생제도를 내실화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제도 대한 정부의 법률안(“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이 내일(12월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내후면 3월부터 시범시행을 하고, 5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 중죄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일백건 재판에 시민을 5에서 9명으로 선발하여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들은 사실인정(유무죄와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이 의견이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시행해 가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기자. 재학 당시 법대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천. 제가 법대 72학번인데 72년 유신이 10월 17일부터 시작되었어요. 4년 내내 학교 생활은 파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암흑한 유신독재치하에서 천천히 학생운동에 나선 것도 아니지만, 학생다운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학교 수업에는 충실한 편이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이 당시 유신체제하에서도 천부인권을 주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의하여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민법은 박운직 교수님께 배웠는데, 민법의 기본개념을 선명하게 설명해주신 명강의였습니다.

기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 인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버리고 속으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재특하는 것이 법조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보편적으로 고귀한 존재인데 평등한 존재인다는 인식이 법조인의 기본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조인들은 엘리트로서 한편으로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지만,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국민 대중과 유리되어 자신의 기득권 구조에 갇혀 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방적인 자세로 외부와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문들과 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사명감과 책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두가지 의미로 양극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민 대중의 생활은 많이 어려워졌고, 대기업이나 상류층의 생활은 매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층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 대결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동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 가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동정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법사상사학자로서 현재 한국법사학회 회장과 한국인문 전기학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법철학자로서도 세계적으로 활동하여 세계법철학 및 사회철학회의 집행위원 이사로 세계 법철학계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법철학을 정립하여 세계 학회에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성과는 현재 마무리중인 저서 [East Asian Jurisprudence]에서 집대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창수 교수

양창수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20년 근속 표창을 받게 되었다. 양창수 교수는 85년 6월에 법과대학에 부임하여 올해로 20년 근속을 맞이한 것이다.

양창수 교수는 현재 한국민사법학회장과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2005년 11월 3일 열린 9기 서울대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평의원회는 학사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대학 발전 계획,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학내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칙 제42조에 의거 설치된 교내 의회 기구이다. 한편 호문혁 교수의 논문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prozessrechts im Jahr 2002"가 민사소송법에 관한 국제 학술지인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International 9. Band 2004"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호문혁 교수는 12월 9일에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12월 12일에는 도쿄의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한다.

권오승 교수

권오승 교수는 올해 9월 22일 제4기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4기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경제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에 대해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권오승 교수는 12월 16일에 본인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경쟁법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성낙인 교수

성낙인 학장은 7월 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및 연차학술대회에서 차기회장(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공법학회는 헌법 및 행정법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1956년 유진오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이래, 꾸준한 학술행사와 학회지 '공법연구'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 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박은정 교수

박은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발족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동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구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연구,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유전자연구 등 특정 생명과학연구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심의기구(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만들어 연구 과제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현행법이 요구하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약학과학 등 원칙적으로 모든 학문분야에서 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IRB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심의기구로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는 2005년 5월 7일 법경제학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법경제학연구회는 2002년에 설립된 학회로,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법과 제도를 분석, 연구하는 취지로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학회이다. 한편 윤진수 교수는 2005. 6. 24, 25 양일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경제학회에서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05. 7. 19 - 23까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12차 세계가족법학회 총회에서 “Tradition and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되는 Human Rights Quarterly의 2005년 8월호 Vol.27, Number 3에 ‘Kwangju and Beyond: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법정은 소급하여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인지 등의 법률상의 문제와, 투쟁 과정에서 진실, 정의, 보상, 명예회복 등의 원칙은 독재체제 하에서의 군사적인 잔혹행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형 교수

김재형 교수는 제4회 천우인론법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인론법학회는 김재형 교수의 논문 “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한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에 제정된 천우인론법상은 국내외 우수한 인론분야 판결문이나 연구논문과 저서를 일 년 단위로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론법 연구와 현실적용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재형 교수의 논문은 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상 구제수단을 심층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인론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유용하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2004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대검찰청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부설 동아시아 전문 연구소인 '하버드 연청 연구소' 방문학자로 선발되어, 2005년 7월부터 1년간 하버드 대학교에 체류하고 있다. 연청 연구소 체류기간 동안 부과된 연구과제는 미국 형사법률부조 체제와 유죄담변협상 제도의 근거와 메카니즘이다.



최봉경 교수

최봉경 교수는 2005년 6월 8일부터 2005년 8월 26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시 소재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사법 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였다. 최봉경 교수는 동 기간 동안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유럽계약법 및 한국민법개정안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였다.



이근관 교수

이근관 교수는 9월 21에서 24일까지 독일 Giessen 대학(Justus-Liebig-Universität Giessen)에서 열린 '국제법의 보편성과 연속성 - 국제법 역사에 관한 학제간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마지막 날인 24일에 "The 'Recept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 China, Japan and Korea: A Comparative and Critical Perspectiv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원우 교수

이원우 교수는 11월 9에서 10일까지 "21세기의 제3섹터 : 소멸될 모델인가 미래지향적 모델인가?"를 주제로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열린 "제3섹터 법경제학회" 창립학회에 참석하여, 10일 "Entwicklungen und Spielarten des Dritten Sektors : aus juristischer Sicht"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은 2006년 Nomos 출판사에서 발간될 학회지 Jahrbuch "Recht und Oekonomik des Dritten Sektors"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 연구 환경 및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 위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직장: e-mail: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문 ☐ 학부모 ☐ 법인/단체 ☐ 기타	입학년도: 학생성명: 대표자성명:	입학년도:
약 정 금 액	일금 원 (W)		
납 부 방 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 지로입금 ☐ 자동이체(CMS)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조흥 서울대지점 873-03-005786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 부 기 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납부		
참 여 내 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